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ISSUE PAPER

### 한국 대학스포츠 현황 및 발전 방향

작성: 한진욱(경희대학교)

- I 국내 대학스포츠 현황 및 문제점
- II 미국 NCAA의 대학스포츠 운영 현황
- III 맺음말
- IV 참고문헌

## 요 약

1990년 대 까지만 해도 대학스포츠는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 프로스포츠에 버금가는 팬을 확보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축소, 대학생 운동선수 입시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대학생 운동선수의 학력 저하 등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예전의 인기는 쇠락하였고, 그 존폐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학스포츠의 위기 속에서 한국 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는 대학 구조 조정에 따른 대학운동부 축소, 폐지 등의 위기 상황에서 대학운동부의 육성 지원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대학스포츠가 처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스포츠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미국의 NCAA의 운영 사례를 통해 국내 대학스포츠 처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볼 필요가 있다. 미국대학스포츠협의회 NCAA는 처음에는 대학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 규칙의 개정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1910년에 수립되었다. 하지만 미국 대학스포츠가 점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상업화되어 가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 NCAA는 단순히 경기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 대학스포츠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괄 운영 단체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대학스포츠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입시비리, 스카우트 문제, 졸업율 저하, 대학 재정의 압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Knight Commission을 구성하여 1991년에서 1993년까지 3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권형일, 김종국, 2012). 3개의 보고서 중 1991년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에서 미국대학에서 체육부(athletic department)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모형으로 ‘One Plus Three Model’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One은 대학의 총장의 역할을 의미하고, Three는 총장이 개혁해야 할 세 가지 부문(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재정적 건전성, 인증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Knight Commission의 보고서에서 1) 기존 체육부장에게 주어졌던 대학운동부 운영에 대한 권한을 총장에게 이전할 것, 2) 선수들의 학업성취도 개선, 3) 재정적 투명성 확보, 4) 인증제도의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 대학스포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 국내 대학스포츠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우리는 한 때 대학스포츠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기 스포츠였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특히, 프로농구가 출범하기 이전의 농구대잔치 시절에 대학 농구는 국내 다른 어떤 스포츠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다. 연세대학교는 1993-1994시즌 당시 실업의 강호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전자 및 대학 라이벌인 고려대학교가 참가한 농구대잔치에서 정규리그 14전 전승을 거뒀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결승 3차전에서 상무에게 유일하게 1패를 당했지만 압도적인 실력과 인기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당시 농구대잔치 중계방송 경기는 정규방송 시간인 오후 5시 반 이전의 정파시간에 경기를 가졌었는데, 경기당 약 한 시간 반 정도를 편성하였다. 하루 세 경기면 1시부터 5시 반까지, 두 경기면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경기가 잡혀있었는데, 당연한 시간 받은 한 경기를 끝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때 마지막 경기는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를 중단합니다'라는 자막이 자주 나왔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기에서는 엄청난 시청률로 인해 처음으로 정규방송을 생략하고 두 팀 간의 경기를 끝까지 중계하였다. 이는 당시 대학 농구가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주인공인 성나정이 연세대학교 농구팀의 팬으로 등장하기도 하였고, 대학농구 선수들의 삶, 도전과 사랑을 주제로 방영됐던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50%에 이를 정도였다.



그림 1.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주인공 성나정의 대학 농구 응원 장면

그러나 최근 국내 대학 운동부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예산 축소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의 감소의 위협으로 인해 심각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광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전국 139개 대학 중 72곳(51.8%)에서 95개 종목의 운동부가 해체됐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31개(32.6%) 대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슬링 8, 정구 5, 배드민턴과 세팍타크로 각 4곳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체 이유는 선수 수급과 재정지원 어려움, 대학구조 조정 등이다. 여기에다 홍보 효과는 없고, 입시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다보니 대학 운동부는 구조조정 1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때 국내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 대학스포츠가 어떠한 이유로 계류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 대학스포츠는 1972년 도입된 대학특례 입학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당시 제3공화국 정권이 국위 선양 및 국민 통합을 이유로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집중 육성 정책을 펼친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운동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체육특기자 제도로 인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운동부를 창단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학업은 뒤로 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엘리트 선수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대학선수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공부보다는 운동에 전념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이것은 대학선수의 가치가 각종 경기 및 대회에서의 상위입상을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입상 실적은 졸업 후 프로나 실업팀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박진경, 2009). 각 대학의 측면에서도 해당 대학의 운동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으로 인해 대학이 홍보도 되고, 대학의 체육관계자들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대학선수의 경기력 지상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권민혁, 2009).

대학스포츠 선수 선발 제도인 체육특기자 제도가 대학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학생선발, 학사 관리제도, 학업성취도 및 스카우트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원이 되면서 대학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정재용, 2015). 일례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최근 축구계에서 퇴출된 사건이 있다. 그는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중이다. 그는 과거 감독 시절에도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도자로 복귀하였다. 오히려 '대학 진학을 잘 시킨다'는 학부모들의 입소문 속에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비정상적인 체육특기자 학생 선발이 낡은 안타까운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유라 사건은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대학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가 얼마나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 사건 이후로 교육부는 2017년 1월에 체육특기생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최저 학력제를 시행하여 전교 석차 하위 30%에 포함되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자격을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도 C 제로 룰을 규정하여 직전 두 학기 평균 학점이 C 제로 미만인 경우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등 4개 종목 U리그에 대학생 선수의 출전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완책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기도 하지만 체육특기생이 프로선수가 되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운동부의 존재 목적이 단지 운동선수의 양성이 아닌 학생선수(student athlete) 육성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2019년 8월 26일에 있었던 2020 KBO 신인 드래프트의 결과는 더 이상 대학스포츠에서 운동지상주의 관점이 대학 및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드래프트 결과를 살펴보면 총 1,078명이 드래프트에 접수하였는데, 1차 지명까지 총 110명의 선수가 프로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하지만 110명의 지명 선수 중 대졸 선수는 단 18명으로 전체 지명자 중 16.4%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6년에 37%에 이르렀던 대졸 선수의 지명 비율은 2017년에 23%, 2018년 18%, 2019년 20%로 해가 갈수록 대학 졸업 선수의 지명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2019년 8월 26일(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NC 다이노스				KT 위즈				LG 트윈스				롯데 지어츠				삼성 라이온즈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1	장규범	투수	덕수고	2	강현우	포수	유신고	3	김윤식	투수	광주전주고	4	송민기	투수	대전고	5	허용동	투수	유신고
11	박시원	외야수	광주제일고	12	전상호	내야수	단국대	13	이주현	내야수	경남고	14	박재민	투수	전주고	15	김지현	내야수	리온고
21	안민산	외야수	야탑고	22	이강준	투수	실악고	23	송호영	내야수	연천 마라골	24	박영현	투수	야탑고	25	송필보	투수	부천고
31	임철원	투수	민원고	32	윤준혁	내야수	출암고	33	강민	투수	서울고	34	정도중	내야수	광주제일고	35	이승민	투수	대구고
41	장태권	투수	배명고	42	김성근	내야수	신일고	43	유영찬	투수	건국대	44	황상민	외야수	경남대	45	박주혁	투수	원문고
51	한원희	투수	대전고	52	서경현	투수	선린인터넷고	53	허영진	투수	원주고	54	안태호	외야수	강릉고	55	조경원	투수	비봉고
61	김현범	내야수	배재고	62	한지훈	포수	신일고	63	황창진	외야수	송암고	64	김진우	내야수	계룡고	65	정인수	포수	민서대
71	한재원	내야수	개성고	72	문상준	내야수	휘문고	73	성재현	투수	연세대	74	한지훈	포수	광주제일고	75	신동수	내야수	개성고
81	이종훈	투수	교산상업고	82	여도진	투수	대구고	83	이정우	외야수	경남고	84	김현종	투수	광양공업고	85	한영준	투수	대구고
91	노상혁	투수	동리대	92	최지호	내야수	경안고	93	박찬호	투수	영문고	94	신현천	투수	강릉고	95	김정민	내야수	성안관대

KIA 타이거즈				키움 히어로즈				현화 이글스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순위	성명	포지션	소속
6	박민	내야수	야탑고	7	이종민	투수	성남고	8	남지민	투수	부산경북고	9	장규빈	포수	경기고	10	전희선	내야수	경남고
16	홍종표	내야수	강릉고	17	신준우	내야수	대구고	18	한승주	투수	부산고	19	정현우	투수	공주고	20	김성민	내야수	청기고
26	오규식	투수	휘문고	27	김동혁	투수	덕수고	28	임종찬	외야수	북일고	29	최세창	투수	개성고	30	최지훈	외야수	동국대
36	유지성	투수	북일고	37	김병희	내야수	강릉고	38	김재민	투수	단국대	39	조재영	투수	마산공업고	40	한원희	포수	대구고
46	김영수	투수	북일고	47	박관진	투수	인화대	48	장용경	투수	동국대	49	박지훈	내야수	마산고	50	이승민	투수	리온고
56	김재희	투수	경남고	57	문현준	내야수	전HOU(마이내)	58	최인호	외야수	포항제철고	59	오영진	내야수	세광고	60	류승준	내야수	성안관대
66	백현종	포수	동강대	67	정재원	외야수	서울고	68	최이건	투수	동국대	69	김성민	투수	광주전주고	70	김지석	투수	야탑고
76	강민수	투수	강릉고	77	강동근	투수	광주동성고	78	박정원	내야수	유신고	79	안현열	외야수	단국대	80	김고함	내야수	계룡고
86	이민현	외야수	강릉영동대	87	박동혁	외야수	화순고	88	김법문	투수	송암고	89	최종현	투수	부산고	90	이기원	내야수	충익대
96	최용준	투수	부산공업고	97	김동욱	투수	홍익대	98	김승필	투수	경남고	99	안현우	외야수	K 커니콜텍스	100	박시훈	투수	원천고

구단 1차 지명  
SK 오원석(야탑고,투) 두산 이주엽(성남고,투) 현화 신지후(북일고,투) 키움 박주홍(경주고,외) KIA 경재영(광주제일고,투)  
삼성 황동재(경북고,투) 롯데 최준원(경남고,투) LG 이민호(휘문고,투) KT 소정훈(유신고,투) NC 김태경(마산영미고,투)

그림 2. 2020 KBO 신인 트래프트 현황

대학 스포츠를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한국 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는 대학 구조 조정 여파 속에서 축소, 폐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육성 지원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스포츠협의회 재정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및 '체육계 대학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2018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연감에 따르면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 평가등급을 획득한 93개 대학에 총 6,784백만 원 및 체육계 대학(한국체육대학)에 800만 원의 훈련비, 훈련용품비, 출전비를 지원하여 대학 운동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사업 실행 원년인 2015년에 74개 대학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93개 대학에 약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 원년 대비 70% 이상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운동부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예산이 최대 45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선수가 가장 많



은 용인대학교가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지원 액수가 아직까지 대학의 운동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표 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현황(2015-2019)

연도	지원금	대학(개)	4년제	2-3년제	국·공립	사립	운동부수 (개)	학생 선수(명)
2015	4,000	74	68	6	19	55	339	4,827
2016	4,000	82	76	6	18	64	380	5,902
2017	4,220	80	71	9	18	62	373	6,059
2018	6,800	94	82	12	21	73	426	6,780

현재 대학의 입장에서는 운동부 운영에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압박이 운동부 존재 여부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운동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운영 예산에 비해 부족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대학 교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정재용, 2015). 또한, 대학 운동부는 대학 본부 차원의 구조 조정의 압박, 재정적 부담 및 각종 비리 스캔들에 끊임없이 연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 운동부 선수 특기자 제도의 모순과 자체 수익 없이 대학 교비로만 운영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많은 대학 운동부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따라서 대학운동부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미국 대학스포츠에서 선수선발, 학업성취도, 졸업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체 수익모델을 통해 재정자립을 꾀하고 있는 NCAA의 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대학스포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II. 미국 NCAA의 대학스포츠 운영 현황

### 1. NCAA의 유래

NCAA는 1906년에 발족된 IAAUS(Inter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가 그 전신이다. IAAUS는 대학 간 축구대항전에서 시합 중 잦은 부상이나 사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190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대학 스포츠관계자들을 초빙하여 대학스포츠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설립되었고, 1910년에 NCAA로 그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초기 NCAA는 경기규칙의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해왔지만, 1921년 이후부터 육상을 필두로 각종 경기대회를 주최하여 왔다. 1999년에 NCAA 본부가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전하였고,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1,281개 대학이 협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4만 명 이상의 등록 선수들이 NCAA가 주최하는 23개 종목의 88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간기구로 출발한 NCAA는 현재 미국의 대학스포츠를 총괄하는 관리기구로 발전하였고,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조직, 운영, 감독하고 있다. 1999년부터 지난 11년 간 CBS 방송국에 독점중계권을 인정하는 TV 중계계약을 체결하여 6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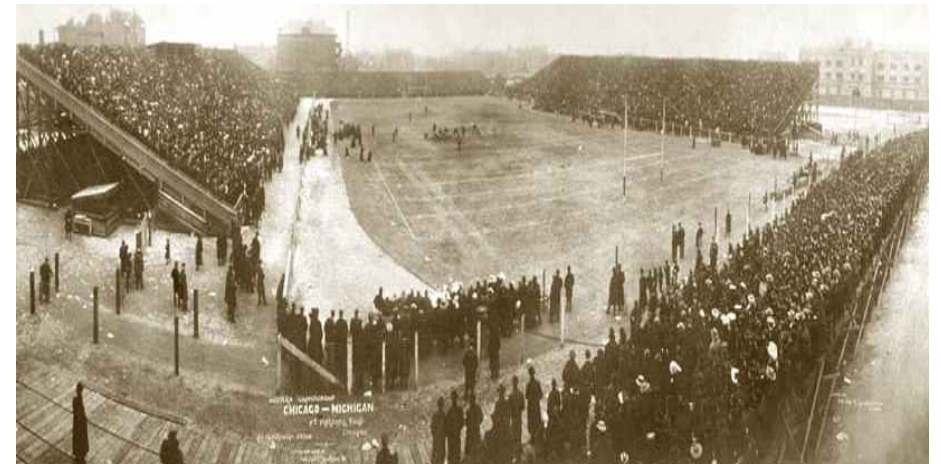


그림 3. 1905년 시카고 대학교와 미시간 대학교의 풋볼 경기

## 2. Knight Commission의 One Plus Three Model

NCAA가 1910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된 이후 미국 대학스포츠는 프로스포츠에 못지않은 인기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 대학스포츠의 상업화와 거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기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상업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박성배, 2016). NCAA는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의 추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도덕적이고 비합법적인 일탈 행위들이 단지 경기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미국 대학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한 아마추어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훼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night Foundation에서는 Knight Commission을 구성하여 1991년, 1992년, 그리고 1993년의 3년에 걸쳐 3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권형일, 김종국, 2012). 3개의 보고서 중 1991년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에서 미국대학에서 체육부(athletic department)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모형으로 'One Plus Three Model'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One은 대학의 총장의 역할을 의미하고, Three는 총장이 개혁해야 할 세 가지 부문(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재정적 건전성, 인증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 1) 체육부장(athletic director)의 권한 축소 및 총장의 권한 강화

1980년대 들어 대학스포츠의 상업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그 당시까지 각 대학에서 대학운동부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체육부장(athletic director)의 입학비리, 성적 조작, 공금횡령 등의 각종 비리가 나타났다. Knight Commission에서는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의 NCAA에 대한 통제와 대학 자체에서의 체육부에 대한 통제가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Knight Commission은 대학의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총장이 대학운동부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여 대학 총장이 대학운동부의 총체적인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NCAA는 Knight Commission의 제안을 수용하여 대학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대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006년에 NCAA 규정집에 포함하였다.

### 2) 학생 선수의 학업성취도 증대

국내 대학스포츠에서도 학생 선수들의 학업성취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Knight Commission의 보고에 의하면 1980년대 대학 운동부 선수들의 졸업율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 출석을 하지 않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수업에 출석을 한다고 해도 학점을 따기 쉬운 과목들만 골라서 신청을 하는 등의 학문적 기만행위가 만연했다(권형일, 김종국, 2012). Knight Commission은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학 운동선수 선발과정에서 최소한 입학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입학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때 학교는 그들의 입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일반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고, 일반학생들과 같은 졸업율을 유지하며 평가에 있어서도 일반 학생과 같은 평가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 3) 재정적 건전성 확보

미국 대학스포츠의 인기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기가 일부 인기 종목(남자 풋볼, 남자 농구)에 편중되고, 대학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함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정적 적자를 호소하였고, 앞서 언급한 남자 풋볼 및 남자 농구의 성적이 좋은 학교에서도 학교나 주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night Commission은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NCAA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을 제안을 하였다. 첫째, 지도자의 규모, 학생선수 선발 비용, 학생 선수 장학금의 수 등의 대학스포츠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체육부의 모든 예산 집행에 총장의 지휘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학생선수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우수 운동선수에게만 편중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권고하였다. 셋째, 동문 및 후원회로부터 각 대학

으로 기부되고 있는 막대한 후원금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일단 대학의 예산으로 편입한 다음에 체육부로 할당해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전미대학농구 챔피언 결정전을 통한 중계권 수입은 반드시 총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챔피언 결정전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균등하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는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Knight Commission은 대학 운동부의 코치가 학교에서 지급되는 연봉 이외에 부수적인 수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어 학교의 이름이나, 시설물, 또는 관련된 제반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학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Knight Commission은 운동부의 코치들이 재정적인 투명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에 있음을 제시하면서 가급적이면 대학은 코치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 4) 외부 인증제도의 확립

Knight Commission은 각 대학의 체육부(athletic department)가 외부 조직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인증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 및 감사를 통해 체육부가 대학들이 선수들의 선정과 입학에 있어서 장학금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III. 맺음말

앞서 한국 대학스포츠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학스포츠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국에서 대학스포츠를 관장하고 있는 통합조직인 NCAA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 대학스포츠는 학생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의 악화, 고등학생 운동선수의 프로스포츠 조기 진출, 선수선발 및 학사관리 비리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스포츠의 본 고장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경우도 국내 대학스포츠가 경험했던 과오를 이미 겪어 왔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미국 NCAA에서는 One Plus Three Model을 통해 1) 기존 체육부장에게 주어졌던 대학운동부 운영에 대한 권한을 총장에게 이전할 것, 2) 선수들의 학업성취도 개선, 3) 재정적 투명성 확보, 4) 인증제도의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 대학스포츠에서도 2010년에 출범한 대학스포츠협의회가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시비리를 개선하고 최저학력제도를 명문화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2010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는 미국 NCAA에서와 같이 C 제로 규정을 도입하여 평점 C 제로를 받지 못한 학생 선수는 리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고, 학기 중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너먼트 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학스포츠의 재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을 통해 국내 대학스포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은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NCAA의 대학스포츠 운영에 대한 사례나 제도(예: One plus Three Model)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동안 한국 대학스포츠의 부정적 측면에서 간과하였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참고문헌

- 권민혁(2009). 대학운동부 활성화 방안.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한국체육학회 주관 대학스포츠선진방안 세미나.
- 권형일, 김종국(2012).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e Association)의 One Plus Three Model을 바탕으로 한 국내 대학스포츠 선진모델 제시. 한국체육과학회지, 21(6), 647-658.
- 박성배(2016). 대학스포츠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인물과 사상사, 224, 157-168.
- 박진경(2009). 대학운동부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한국체육학회 주관 대학스포츠선진방안 세미나.
- 정재용(2015). 대학 스포츠 산업화, 시스템 개혁이 해법. 스포츠산업이슈페이퍼, 4, 1-16.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발간목적: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는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안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편집위원회

- 편집 위원: 정지명(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유의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상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수(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경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신성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박선영(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